



스위스 와인 호텔.

로컬들의 특별한 가을 여행

가을 빛에 물들어 노랗게 변한 포도밭에서의 하룻밤

와인에 온전히 몰두할 수 있는 호텔들

로맨틱한 분위기 속 시음이 전부는 아니다

와인 배럴 객실부터 와인 테라피, 미식 쿠킹 코스까지

가을 품 속에 안겨볼 수 있는 호텔들

가을이면 스위스 사람들은 미식 여행을 떠날 준비를 한다. 스위스 각지의 와인 산지에서는 추수가 한창이고, 축제가 벌어진다. 일 년에 한 번 떠나는 특별한 가을 여행을 위해 이들은 특별한 숙소를 찾는다. 온전히 와인에 몰두할 수 있는 곳이다. 포도밭 한 가운데에서 잠을 청하든, 와인 배럴에서 하룻밤을 묵어가든, 와인 테라피를 받아보든, 호텔이 자체 생산한 와인을 시음해 보든, 이곳에서는 모든 일이 와인을 중심으로 벌어진다.

1. 카스텔로 델 솔레(Castello del Sole) ****S, 아스코나(Ascona)

비네아솔레 코스메티카(Vineasole Cosmetics)는 카스텔로 델 솔레의 포도밭부터 테레니 알라 마지아(Terreni alla Maggia)까지, 까다롭게 선별한 재료를 사용한 스킨 케어 제품을 사용해 피부를 재생하고 영양을 공급한다. 유효성분은 이 지역에서 난 포도 씨 오일과 포도 잎에서 추출한 것이다.

2. 도멘 드 샤토뷰(Domaine de Chateauvieux)****, 사티니(Satigny)

이 저택은 14 세기의 것으로, 와인 러버들에게 특별한 체험을 선사한다. 자체 생산하는 와인을 셀러에서 시음해볼 수 있으며, 미식 쿠킹 코스 중에도 즐겨볼 수 있다.

3. 호텔 레스토랑 & 스파(Hôtel Restaurants & Spa) – 르 바롱 타베르니에(Le Baron Tavernier)***S, 쉘브레(Chexbres)

이 호텔은 레만(Léman) 호 언덕 위에 높이 자리해 있는데,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록된 라보(Lavaux) 포도밭 한복판에 자리해 있다. 이례적인 풍경 속에 위치해 있다.

4. 카르타우세 이팅엔(Kartause Ittingen)***, 프라우엔펠트(Frauenfeld) 근교 바르트(Warth)

약 3 만평에 달하는 포도밭에서 재배되는 포도는 수도원 자체 와인 셀러에서 기막힌 와인으로 탄생한다. 여덟 개의 다른 품종이 카르타우세 이팅엔 수도원의 포도밭에서 재배되고 있다.

5. 오베르쥬 드 라 가르(Auberge de la Gare)***, 그랑보(Grandvaux)

1862 년에 지어진 작고 매력적인 호텔에는 다섯 개의 객실이 있는데, 아름답게 복원되었다. 포도밭 중간에 자리해 있어 라보(Lavaux) 포도밭과 레만(Léman)호, 알프스의 기막힌 풍경을 선사한다.

6. 샤토 살라보(Château Salavaux), 살라보(Salavaux)

16 세기에 지어진 샤토 살라보는 아름다운 시골 풍경 속에 안겨있다. 나무와 장미 덩굴, 포도밭으로 둘러싸여 있는 이 호텔은 쉬어가며 그 시간 자체를 즐길 수 있는 완벽한 곳이다.

7. 쉘라프-파스 마이엔펠트(Schlaf-Fass Maienfeld), 마이엔펠트(Maienfeld)



아늑한 저녁과 편안한 밤을 한때 8 천 리터의 리슬링-실바너 와인이 숙성되던 곳에서 보낼 수 있다. 마이엔펠트에 자리한 배럴 객실은 잊지 못할 체험이 되어준다.

8. 버블 호텔 바인펠덴(Bubble Hotel Weinfelden)

스위스 포도밭에서의 하룻밤. 바인펠덴에 있는 버블 호텔은 포도밭 한가운데 자리해 있으며 한 치의 가림도 없는 밤하늘을 선사한다.

9. 샤토 로쉬포르(Château Rochefort), 알라망(Allaman)

샤토 로쉬פור는 그림 같은 포도밭을 가로질러 자리해 있는 옛 고성으로 여행자들을 맞이한다.

10. 콜린 드 다발(Colline de Daval), 시에르(Sierre)

옛 수 탑은 한 때 포도밭 관개를 위해 사용되었으며, 와인 생산자들에게 쉼터가 되어 주었다. 지금 이 작은 성에는 다섯 개의 객실이 마련되어 있는데, 각각의 이름은 이 지역 와인에서 따왔다.

11. B & B 르 비니(Le Vigny), 퀴리(Cully)

와인 생산자의 고된 하루의 일과가 끝나고 포도밭 오두막에서 쉬어가던 곳이 지금은 기막힌 풍경 속에서 특별한 숙박 체험을 할 수 있는 곳으로 변모했다. 하얀 벽과 목재 바닥, 가구와 시설 모두 과거 추억이 어린 것들이다.

12. 파토리아 아모로소(Fattoria Amoruso), 세멘티나(Sementina)

세멘티나 마을과 구도(Gudo) 마을 사이에 자리한 아모로사의 크기는 약 4 만 5 천 평으로, 그중 약 만 2 천 평이 포도밭으로 사용된다. 농가에는 10 개의 객실이 있는데, 포도밭 한복판에서 주변 풍경의 아름다운 풍경을 벗 삼아 편안한 밤을 보낼 수 있다.

13. 그랜드 호텔 바드 라가츠(Grand Resort Bad Ragaz)***S, 바드 라가츠(Bad Ragaz)**

다채로운 웰니스 서비스와 함께 그랜드 호텔 바드 라가츠는 놀라운 와인을 선보인다. 2018 년 고미요 소물리에로 선정된 프란체스코 벤베누토(Francesco Benvenuto)는 그가 직접 만든 피노 누아를 기쁘게 서빙한다.

14. 리조트 콜리나 도로(Resort Collina d’Oro), 아그라-콜리나 도로(Agra-Collina d’Oro)

리조트 콜리나 도로에는 이들이 소유한 포도밭이 있는데, 소비뇽 블랑, 카베르네, 콜리나 도로 메를로 품종을 재배한다. 수상에 빛나는 와인들을 레스토랑에서 서빙하며 제한적 판매도 한다.

자료제공: 스위스 정부관광청 www.MySwitzerland.co.kr